

‘별별 최고를 찾아라!’... ‘정읍 기네스’ 나왔다

현존 유일 백제가요 정읍사 등 역사·문화예술 등 8개 분야 정읍시, 94건 선정 책으로 발간

정읍시가 정읍만의 최고·최초·최대·최다 기록을 발굴하는 ‘별별 최고를 찾아라! 정읍 기네스’를 최종 선정했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기네스 인증 대상은 역사와 인물, 문화예술, 산업경제, 농축산업, 교육복지, 자연환경, 기타 등 8개 분야 94건이다.

인증대상에는 인물 편에 정읍 최장기 이·통장으로 재직할 김영환씨와 정읍 최다현혈왕 이명준씨, 정읍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기자 박기섭 광주일보 전북취재본부장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예술 편에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와 전국 최초의 민간 향약인 태인 ‘고현동 향약’ 등 10건이 선정됐다.

산업경제 편에는 최초 유역변경식 수력 발전소 ‘칠보 수력발전소’와 정읍 유일 재래식 솜틀집 ‘대양솜공장’ 등 23건이 뽑혔다.

또 교육복지 편에서는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로 ‘고부초등학교’, 가장 오래된 경로당으로 ‘정읍노후재’ 포함 14건이 최종 선정됐다.

정읍 기네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



정읍시가 정읍만의 최고·최초·최대·최다 기록을 발굴하는 ‘별별 최고를 찾아라! 정읍 기네스’ 인증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은 조 선왕조실록 이만 재현 모습. <정읍시 제공>

치 있는 기록과 시민들도 알지 못했던 정읍만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공모전이다.

정읍시는 지난해부터 시민공모를 통해 158건의 기록을 접수·발굴하고 현지실사와 인터뷰, 신문기사 스크랩 등 정밀한 검증 등 거쳤으며 올해 최종 94건의 기록을

수록한 ‘2019 정읍 기네스’ 책자를 발간했다.

‘2019 정읍 기네스’ 책자는 지역 내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읍 기네스 인증대상 기록 보유자에게는 책자와 함께 인증패가 수여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만의 독특한 기록과 잠재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자긍심을 선사하고, 고부가가치의 매력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속도’

이달 중 발전사 선정... 올 상반기 군산시민발전(주) 설립

군산시가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투자를 기반

으로 한 태양광·풍력 등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현재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전사 우선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사업 제안서 접수를 통해 시 사업구조에 적합한 발전사를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발전사 선정 이후에는 EPC(설계·조

달·시공을 일괄 수행)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협약·유치를 확정지는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의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재정을 지원하고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일손 부족 농가 밭 대신 갈아드립니다”

고창군, 트랙터·쇄토기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고창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밭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이다. 밭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트랙터, 쇠토기 등 농기계를 활용해 경운과 정지작업을 지원한다.

고창군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30농가를 대상으로 3.6ha를 운영해 농작업 부담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전면 확대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해 트랙터 2대를 구입하는 등 농작업 대행체계를 구축했다.

신청 자격은 고창군민으로 3000㎡ 이하를 경작하는 70세 이상 고령자, 여성 1인 가구, 귀농인 3년 이하이며 농작업 대행료는 무료다.

올해 읍·면별 농작업대행서비스 수요조사 등을 통해 60농가(10ha)가 희망했다.



고창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밭을 갈아주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작업 효율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석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위해 ‘글로벌 통역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외국인 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외국어 능통자 공무원 6명 선발 ‘글로벌 통역관’ 운영

정읍시는 이달부터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읍시 거주 외국인은 해마다 꾸준히 늘며 올해 현재 2877명으로 집계됐다.

정읍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읍시는 국외 공무원 연수경력이 있거나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외국어가 능통한 시청 소속 공무원 6명을 선발해 외국인 통역관으로 지정했다.

통역관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민원실을 찾은 외국인의 원활하고 빠른 민원처

리를 위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 민원인의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는 물론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의문 사항이나 애로점을 파악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외국인 주민의 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결해 준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외국어 통역관은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과 담당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활약하게 된다”며 “계속 확대·개선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는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등 16개 사업에 25억원을 들여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한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가축분뇨처리 사업 추진...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남원시가 올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악취 저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6개 사업에 25억원을 투입,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한 사업이다. 우선 2억원을 들여 가축분뇨 개별시설

(퇴비사) 9개소를 설치하고, 3억4000만 원을 투입해 1300ha 면적의 액비살포비와 액비저장조 4기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축사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톱밥·왕겨) 등 13억9300만원을 투입하고, 5억4000만원을 들여 계사 축분처리 장비를 비롯해 가축분뇨 처리용 스키드러를 지원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스타일 Modern |
클래식스타일 Classic |
지중해스타일 Mediterranean Sea |